

20세기를 마감하는 건축의 근원을 찾아서

An Origin of Architecture in the Closing of the 21th Century

윤여욱 /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심환경

by Yoon Yeo-Wook

지금 세계사적 화두는 인류문명의 충돌과 분출 그리고 이데올로기 대립의 종식은 20세기 역사의 끝마무림의 시대다. 자본주의부터 첨단적인 과학기술 및 경제와 과학의 논리법칙에 이르기까지 개인이든 집단이든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미래에 있어서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지향에 있어 지난 동서분열 35년 소련의 붕괴는 흥분과 긴장 속에 냉전의 소멸은 믿을 수 없는 자본주의 승리다. 이 시대에 세계인의 경쟁과 대항 주체는 “문명”이다. 헌팅턴의 문명의 개념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그 문명의 개념은 인류문명의 발전을 예상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발전의 필연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세계변화의 가속도는 정보통신과 더불어 절대적인 기계화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불륜은 인간의 존엄성까지 잃어버리기 시작한 삶의 자연·인간·건축 또는 예술·과학·기술의 하나임의 틀림없다. 따라서 하나임은 분명 미래의 삶에 결정적 요소이다.

세계인숙에 자본의 무한경쟁은 부익부 빈익빈,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부양하지 못하고 삶의 고통과 절망으로 적대심에 부딪혀 매우 어려운 삶에 생명의 구성원으로 땅을 일구어먹고 땅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과 땅속에 작은 미물까지 이 땅위에 주인이 누구인가? 냉전적 무기생산은 중단되고 가난의 한계에 달하여 굶주린 그들에게도 욕심과 탐욕으로 물질 중심은 토지·자본·노동분배를 둘러싼 기본의 갈등이 이동되고 몰려간다. “상생과 상살을 부르는 토지란” 자본에서 성장하는 도시적 형태는 농촌을 무력화하여 자유로이 인류문명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문명의 시대로 태어났다.

『한 TV에서 방영됐던 멕시코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새로운 개발을 위해 30년이상 고향을 지키고 생활의 삶에 터전을 떠나야 했던 산타테마를 사람 그곳에 외국자본에 의존한 산타페 상업센터가 들어섰으나 그 이웃에 마르끼리타(들국화 마을)까지 큰 위협을 산타페 마을인의 보금자리 지키기 또한 들국화 마을인 생활의 삶에 터전을 떠나고 싶지 않은 모습의 고통은 사람의 삶이 멀어진다. 미국상품 점유율의 멕시코시장 76%차지하고 있음은』 있는 자의 의혹현상은 약한자의 마땅한 권리가 상실될 것이다.

대국과 소국은 삶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문명의 경쟁은 어떤 형태라도 숨어 있을 것이다. 그 지혜는 가난한 자가 부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자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다. 가난의 평등에서 상향평준화의 경쟁을 기르는 것이 단지 몸집만을 키우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여기 경쟁이란 새로운 삶의 상상력으로 강자는 이기고 적자와 더불어 산다는 자유와 평등의 선택은 삶의 편중에 모순들로 문화의 존엄성, 필요성은 결국 경쟁에 있어 경제·사회·정치를 문화가 조정자로 자리를 메꾼다. 진정한 공동체의 꿈은 타임머신을 싣고 가는 시간·공간적 획으로 밀레니엄의 꿈속으로 몰입해 들어가며 한없이 무한하다. 그 꿈속에 우리는 대립과 갈등 그리고 균형과 조화로 우리는 숨겨진 건축가와 보여주는 건축가도 많다. 서양의 하이테크적 형이상학기술은 대립·갈등·투쟁관계는 경쟁의 전쟁으로 부추기 경제정의로 일축되고 있으나 화합·융화·조화 동양의 자연관은 사회정의로 남을 인정하고 하잘 것 없는 생명까지 잃는다 해도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정의 보다 사회 정의가 생긴 것이다. 지나가는 천년과 다가오는 새천년의 의미는 꿈을 현실로 펼쳐 진정한 인간의 삶의 행복과 평화에 온 지구인의 real time에 영혼의 빛으로 인간 마음속의 정서적DNA를 찾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마음으로 통하여 찬란한 건축문화의 새 천년을 기다려본다. 건축이 인간의 삶에 질과 친화적으로 자연과 호흡하며 새로운 탈 이념에 반전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는 지구촌에 아파트 개발의 업적은 그리스의 변화가예, 로마에, 18세기후반 산업혁명으로부터 토지·자본·노동의 출현으로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 과밀화는 인간의 삶에 양과 질은 도시·농촌에 흉한 건축, 무분별한 개발로 토지는 황폐화되었고 보이지 않는 기에는 천기사상의 가치가 하잘 것 없는 삶의 질을 요구하는 의미는 아닌지?

건축·도시의 창출로 자본계급과 노동의 계급 관계로 착취적인 분배의 삶과 물질을 변화시키고 세계적인 만리장

성은 우리에게 프롤레타리아는 무엇을 던지고 있는가?

아마도 진시왕의 의지성찰이 개인에 축적의 가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 길이가 총2,400km로 건설된 요새로써 몽골로부터 침침을 막기 위한 성은 우리의 대규모 아파트(귀족 아파트 평당 분양가 1,000~2,000만원)개발이 만리장성의 양과 질에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양적 대형화, 경제적 자본논리에 삶의 중심 축이 있어 사용의 시스템보다 소유개념은 우리 건축의 본질적 양태는 위태롭기만 하고 그 반면 긍정적 차원 순환은 재해석적 정형화 유형의 보편성과 창작성 이론만이 현존하는 시대이념을 바랄 뿐이다.

현존하는 물질 사회중심에서 생태적 사회를 외면한 삶의 원류가 너무도 사치와 오만은 귀족성의 개발들로 유행하나 그 유행은 인간의 욕심에 결핍 끝없는 무한경쟁의 승리의 모델로 망각과 쾌락의 자태로 잉태할 것인지. 가난한 자의 인정을 외면하여야 하는 상류층계급 집단을 한 부분의 문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이 부와 빈이 열려 있음이 또다른 진정한 삶은 상류층과 하류층 거기에서 동등한 분배에 생태적 삶이 이루어진다 할 것이다.

건축의 생명력은 잃었다. 건축의 죽음 → 인간의 죽음 → 자연의 죽음 → 지구의 죽음 → 우주의 죽음 → 만물의 죽음 끝없는 연계의 죽음으로 보잘것 없는 들꽃풀이 생명까지 견디지 못한 인간의 계약들로 사물대상의 주권이 인간위주의 삶에 주체분열로부터 대자연계약이 무방비로 비참한 삶을 누려야 했던 공생의 삶은 인간이외의 생명의 주체가 동등한 자유, 상호간 균형 유지가 공통적 삶의 방식에 있어 과연 아파트 개발은 주거환경에 혁명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지속성을 가지는 주거건축으로 인간의 삶에 기본이 되는 동지로서 다음세대의 문화유산으로 남길때 그 또한 경제·사회·건축의 부작용은 만리장성과 다를 바 없다. 만리장성은 자연과 친화적이고 인간의 삶과 멀리 느껴지지만 오늘 사이버 공간시대에 초고속 정보통신 아파트는 인간을 담은 용기의 주거 기능으로써 부정적 요소도 있지만 긍정 요소로 주거기능의 질과 양은 만리장성을 능가한다. 그러나 아파트가 만리장성의 역사성 문화성보다 보호를 받을 만큼의 시대정신의 의미는 없을 것이다. 경관은 자연과 조화롭지 못하고 도시다운 이미지로 교외지에도 풍해로 태어나고 있다.

자연권에 대한 설정이 인권과 동시에 인정되고 동등한 주체로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변화하려고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다고 지식인 비평과 논리는 확고한 학문과 창작의 질서들로 세계인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이론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만이 건축을 지킬 것으로 본다. 혹시 초엘리트들의 영역으로써 전체건축의 본질을 잠재우고 있지 않는가?

혹은 건축의 지식인으로 하여야 할 건축의 근원을 찾지 못한 우리 건축가 역할을 묻고싶다. 기존의 건축이 새로운 변화의 삶에 기능과 적응하지 못하였을 때 건축가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건축의 본질을 지키려는 소수쟁이들이 잃어버린 작품성 곧 건축의 잣대였을 뿐 안과 밖의 망물에 싸여 흐름과 생명이 "건축" 아닌 "건물"로 파악될 때 오히려 "건축"과 "건설" 정의가 그 의미 투명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것이 더 넓은 영역의 자리매김을 지킬 때 그 반성의 질곡에서 혹시 조화스러운 통합시스템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건축의 본질을 구태여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나나 문제로써 건축문화의 넓은 영역을 누가 총체적 건축의 의미를 던질 수 있겠는가?

건축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반성하는 복합장르가 건축의 한 작은 문화로 자리를 메꾼다. 인류는 저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생활과 풍습이 다르지만 글·말보다 마음의 감정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 건축도 글과 말 의미도 중요시 하지만 역시 창조적 표현은 작품을 통해 건축이념의 영역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주의와 전통주의 사이 건축의 면모를 실망스럽지 않게 뿌리를 내리고 우선 자연을 손상하지 않는 생태 시스템만이 현대건축의 기초를 넘는 지구촌의 구성으로 인간의 활발한 삶에 여명을 자리함께함을 태양은 형, 달은 아우, 우리의 지구와 한 형제였다. 금세기 모더니즘도 우주상의 만물의 발전과 재창조의 현실을 잃었다. (조형론·의장론·작가론·형태론·공간론·비평론)아름다운 이념 이전에 생태시스템(생체적·생물학적)은 보이는 건축보다는 보이지 않는 건축의 본질 존재이다. 우주생명과 호흡으로 더 큰 에너지로 태양의 유용성, 바람의 흐름, 빛과 어두움의 적절한 대비에서 색을 끌어들이고 열과 수환경 불가피성 그리고 더 큰 시스템(축각·청각·후각·질 의 인지)으로 아름다운 디자인이 곧 신지혜가 아닐까?

잃어버린 건축·도시를 기억하고 자연을 인정하는 관계로 다시 소리가 들리고 인간·자연·건축이 단절되지 않고 이 세상에 영원히 지탱할 수 있는 건축 근원을 찾아서 그로 말미암아 건축을 통해 세상의 깊이를 얻는 것이다. 이 시대에 건축의 걸어온 보수적 역사와 진보적 존재는 노력없는 다만 건축가의 혼일 뿐인 장인정신과 건축가 에릭 오웬 모스의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감상의 발언, 그것은 악마의 끊임없는 변신이다. 그것이 건축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조금은 미숙하지만 실현의 고통을 호소하자. 그래서 구경거리가 많은 건축을 만들고 삶의 생명도 창조하는 자연에 효를 다하므로 건축의 길, 인생의 길, 우주의 길 수많은 앵콜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